容疑者 3名 떠올라

KPT 連鎖 盜難사건 搜査 진전
被害者들의 積極的 협조를 要請

(하와이·속보)쿠히오 파크 테라스의 연쇄 도난사건을수사중인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점찍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으나 아직 확증을 못잡아 체포를 미루고 있다.

호놀루루 경찰서 칼리히우 카분국의 Fajardo수사관은이 이같이 밝히고 『범인 체포는 시간 문제인데 피해자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체포는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에 이어 현재까 지 22건의 어파트 도난사건외에 리나푸니스물과 1개소의 사무실까지 털렸다고 밝힌Fajardo수사관은 최근부터 5명의 수사관이 KPT의 A·B동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도범현장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것.

그는 고층 아파트 일수록 난간이 높아 시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범인들이 아파트를 털은후 같은 빌딩에 숨겨두었다 옮기는 수법을쓰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Fajardo 수사관 과의 일문일답은 다음과같다도

—범인들이 한국인의 아파트를 주로 노리는 이유는어디있다고 보는가?

▲한국인들은 거의가 근면하다. 내외가 일을하고 돈을 모아 패물과 귀중품을 사모으는 좋은 습성을 가진 민족이다.

반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도난을 당해도도난신고나 사후처리를 잘할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범인들은 바로 이러한 취약점을 잘알고 있는듯하다.

귀중품과 현금등은 은행의 세프티 복스에 맡기는것이 안전하다.

—칼리히지역에 사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타지역에 비해 교육수준과 경제적 배경이 낮아 웰페어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이 살고있다(한인은 제외)

이들은 대부분 그날그날을 놀고 먹는데 물건 소유욕은 남보다 높은 편이다.

다 말해 무엇하겠는가? 경찰차와 스텐리오까지 떼어가는 판이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한인들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카메라등 귀중품의 시리얼 넘 버를 꼭 기록해 두면 진범을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인피해자중 시리얼 넘버를 기록한 사람이 한명도 없어 장물수사에 애로가 크다.

그리고 대낮에 범인이 침입했을 경우 얼굴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용의자 중에서 진범을 가릴 수 있으면 좋겠고 수상한자를 발견했을때는 즉각 전화로 연락해 주면 KPT주변에 파견돼 있는 경찰에 연락하여 검거하도록하겠다.

수사본부의 ☎955—8128

경찰로서는 범인체포에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KPT연쇄도난사건의 수사진전을 말하는 Fajardo 수사관.

青龍축구단 2連勝 21일(日)에 3次戰

(하와이) 스프링 리그전에 출전하고 있는 청룡축구단은 14일 「쥬니어바에티」팀을 2:0으로 눌러 3차전에 진출케 됐다.

지난 6일 「홍콩학생팀」을 7:0으로 격파한데 이어또 다시 「쥬니어 바에티」팀을제압한 청룡은 이날 이성환, 이광명군등 에이스들의 맹활약으로 전후반에 걸쳐 한점씩을 얻어 2:0으로 승리했다.

3차전은 21일(일) 하오1시 와일라에 이키공원에서벌어지며 상대는 「하와이 레인저」팀이다.

총45개팀이 참가하고 있는 스프링 리그전은 5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무궁화축구팀憤敗 2次戰은 20일(土)

(하와이) 지난달 중순깨장년층으로 구성된 무궁화회축구팀은 13일 「다마리 바이티」팀과의 대전에서 3:2로 분패했다.

40대 교포들을 주축으로조직된 「무궁화」팀은 오는20일(토) 하오1시 가네오헤에있는 축구장에서 「쥬니어 오하나」팀과 2차경기를 갖는다.

放学中일거리마련 州労動庁과工場서

(하와이) 주정부 노동청은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을위해 9백종의 일거리가 마련될것이라고 밝혔다.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일들에는 엔지니어링 오락, 과수조수, 타이피스트 스태노 그래퍼등등인데 이일들은 6월말까지만 계속된다고 한다.

희망자는 1040 S.King St에 있는 하와이주 직업소개소에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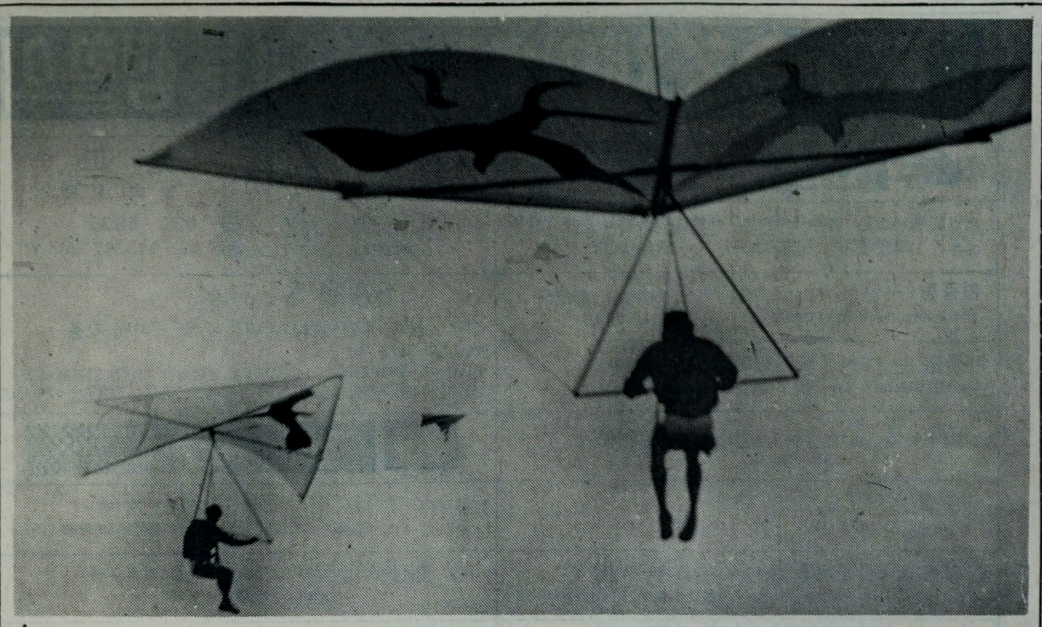
주정부는 또한 베테란학생(제대후 학생중인자)들 에게 2백98종의 파트 타임 일거리를 줄 예정인데 주당 19시간30분 일하며 임금은 시간당 3달러이다.

기념行事일부取消 独立紀念委자금난

(하와이) 다채로운 독립기념 행사를 추진해온 하와이주의 미국 독립2백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기금고갈로 인해 작은 규모의 행사들은 취소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사무실은 금년 말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인데 오는 7월4일을 전후한 큰 행사들은 계획한 대로 수행할 것 같다.

이 큰 행사들은 7월 2일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무료 쇼가 있고 대퍼레이드도 벌어진다.



◇空中曲芸師의 아슬아슬한 묘기—13일 하와이 Sea Life Park에서 열린 대형 연(Kite)시승대회에서 날개길이 6미터의 연을 타고 공중을 나르는 파이오니아들의 아슬아슬한 妙技는 손에 땀을 쥐게했다. <13일 하와이 Sea Life Park 연날리기대회에서 최교식기자 찍음>

하와이 뉴스

미미宝石店서세일 23일부터 5일간

(하와이) 미미보석점(1641 Kapiolani Bl)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세일을 한다.

다이어몬드등 귀금속을 15%내지 50%까지 세일을하는 미미보석점은 세일기간 미국인 보석전문가 놀만·클람퍼트씨를 특별초빙, 특별한 디자인으로 세공과 수리도하며 로렉스 오메가등 시계수리도 특가로 써비스 하리라고.

☎946—6223

리커스토어 開業 僑胞 문용태씨가

(하와이)선 패시픽 부동산회사의 세일스맨인 문 용태씨가 Aiea에 리커스토어를개업했다.

사모아에서 온 문승규씨와의 합자로 운영되는「Aiea Li Liquor's」의 전화 488—4129

会長団과 任員확정

하와이体育会, 전극도会長 발표
27일 리조트호텔서 제1차総会

(하와이) 만33일간의 인선작업을 마친 전극도 하와이체육회 회장은 17일 본보 하와이지국을 내방, 최종 확정된 회장단과 임원명단을 발표했다.

이윤희 총영사를 비롯한8명의 고문과 2명의 감사,그리고 7명의 이사를 추대 하고있는 하와이 체육회의 초대회장단및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전극도씨▲부회장—임철호·고봉식씨▲사무국장—김용덕씨▲재무부장—김동균씨▲섭외부장—박필규씨▲홍보부장—정현종씨▲심판부장—김준배씨▲경기부장—박용남씨▲태권도분과위원장—홍성옥씨▲축구분과위원장—박성호씨▲정구분과위원장—박영태씨▲농구분과위원장—최근창씨▲배구분과위원장—김용덕씨▲야구분과위원장—박남진씨▲사격분과위원장—최대윤씨

2월13일 창립된바 있는하와이 체육회는 오는 27일(토)하오7시 와이키키 리조트호텔 녹산장에서 제1차총회를 갖는다.

▲17일 최종적으로 인선을 마친 하와이 체육회의 회장단—좌로부터 전극도회장 임철호 고봉식부회장, 김용덕사무국장.

「라디오 한국」프로

◇3월20일(토)밤9시~11시 KNDI (1270 KHZ-AM)

9:00▲음악▲주간종합뉴스 (본국, 하와이, 미주)

9:30▲문예극장「종소리」

9:50▲이주일을 보람있게 (담당·박대희목사)

10:00▲생활영어—이상억박사

10:20▲이주일의 퀴즈(상품—연수정목걸이·미미보석점 제공)

10:25▲희망음악

10:50▲5분명상(대원스님)

10:55▲공지사항, 교회소식

알로하타워

최근 우리민족은 대민족이 동처럼 이민이 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미국에 이주하고 있다.

그 많은 이만자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자손들의 번영을 위해서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하여야하며 우리 후손들이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신적 유산을 넘겨 주어야 할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여러민족이 특유한 국가관을 형성하면서 각민족의 특유한 문화를 미국사회에 살리는 곳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그문화의 다양화를 이상으로 삼고 이민은 민족들이 자기네 아이덴디티를 충분히 표현하는것을 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민이 살고있는 가주나 하와이등지에서 이중언어교육을 구상하고 있는것은 이러한 미국의 사회적인 특성을 살리려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문화 즉, 자기 민족의 아이덴디티를 잘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이 미국사회의 본질에 맞는 인물 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들 자녀들에게는 한국인다운 아이덴디티를 톡톡히 이 사회에 드러낼 수 있게끔 교육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이민은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하와이의 속어중에 「바나나」라는 말이 있다. 속은 희고 겉은 노랗다는 뜻으로 동양인이면서 속은 완전 백인처럼 되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이다

사고방식이 완전 서양인처럼 되었다해서 미국인으로인정받느냐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

어디서 태어났거나 영어만 잘 지꺼리면 미 국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우리피부의 색갈과 민족적인 본 바탕으로 '취급'을 받게되어 있다.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은믿어지지 않는것처럼 동양인이면서 서양인행세를 한다면이것도 저것도 아닌 얼치기로 볼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그런 사람은아이덴디티가 없어서 이사회에서 끝내는 소외당하고 말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째즈음악이라면 흑인을 연상한다.

흑인특유의 아이덴디티 를 데모나 예술로서 드러냈기때문이다.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이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도 그들 특유의 아이덴디티를 확실히 갖고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 알부자로 유명한 중국인들은 그들 가족끼리 굳게 뭉쳐 공동사업을 하는 그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잘살렸으므로 사회에서성공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자기네 민족의 아이덴디티를 잘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다.

그것은 바로 문화의 대표적인 표현수단인 「언어」인것이다.

인간은 언어로서 각자의아이덴디티가 밝혀진다.

언어는 자기됨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녀의 모국어교육은 더할바 없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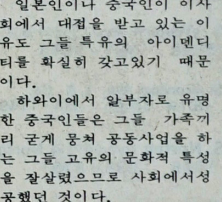
우리는 집에서 꼭 한국말을 써야겠다. 어떤 부모들은 혹 한국어를 가르치면 영어가 서툴어지지나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연한 염려이다.

인간은 그 생활환경에 따라서 3세~12세까지 4, 5개국어를 가르치면 능통할수 있다는 과학적인 분석결과가 있다.

다행히 처음 하와이로 이민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영어를 전혀 몰랐기에 2세 들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말의 기본은 알고 있다. 문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모국어를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이다.

때문에 모국어의 교육은가정에서 익힌것을 학교에서재교육을 통하여 발전시켜야완벽해질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



하와이 사회에서 세력을뻗히고 있는 일본인 2세 3세들은 거의가 모국어를 잘 구사하고 있고 대부분이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와이대학의 일본어과가 대인기인 사실도 좋은 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아이덴디티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때가 되었다.

온 세계의 민족이 우리의 성실하고 우수한 민족성과명석한 두뇌를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불리한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것은 세계가 인정하고있지 않은가?

우리는 뛰어난 재질과 스마트한 두뇌를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모국어교육을 시켜야한다.

주 교육위원회 고위간부는 『한국 이민학생들의 학교 교육은 걱정할 것이 없다. 얼마간의 고통을 겪고나면 학급에서 우등생이 되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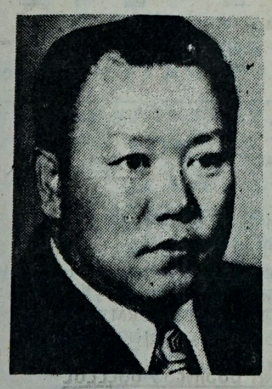
우리는 배달의 자랑스런문화와 우수성을 미국사회에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성실히가르쳐야 한다.

<하와이한인사회학교교장>

하와이 지역 主日礼拜 안내 3월21일(일요일)

교 회 명(가나다순)	설교자	설 교 제 목	시 간	주 소	전 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박대희	내뜻대로마옵시고당신의뜻대로	상오9:30 하오7:00	1639 Keaaumoku St.	536—4023
밀리라니한인교회	김정구	성령의 온사	상오11:00 하오7:00	Recreation Center No1 Miliani Town	538—7246
순복음하와이교회	안희철	은혜로사는크리스찬	하오1:00 하오7:00	2305 University Ave. KPT컴뮤니티홀	841—7113
성봉가성공회	죠지리	교리해설과 미사	상오9:30	48 N. Judd St.	533—3481
제일장리교회	이문규	주어진사명	상오11:00 하오7:00	YWCA (1040 Richard St)	531—6722
하와이순복음교회	이근신	일동신자	상오11:00 하오7:30	930 Luanalilo St.	521—3240
하와이한인카톨릭교회	박문수	주께서우리와함께노력하신다	정오	1701 Willder Ave.	949—8608
한인호널루루교회	윤상범	말씀의 온사	상오10:45	1775 S.Beretania St.	734—0052
호널루루한인기독교	김치연		하오3:00	1832 Liliha St.	536—4755

하와이
미미보석점
다이아몬드전문 감정및미술세공 교환 및 매매
고급 비취. 오팔 시계수리부신설 보증서교부
☎ 946-6223

하와이
적은 돈을 ➡ 큰 자본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업번창을 도와 드립니다.
CB CITY BANK

부사장 : 오 건 창
상담 ☎ 546-3944
가장 편리한
■보통예금
높은 이자의
■정기예금
계속 불입할 수 있는
■정기적금
※상기 구좌당 $40,000까지의 보험을 미 연방정부에서 보증합니다.
■본점 : 810 Richards ST. Honolulu, Hawaii 96813
■지점 : McCULLY, Kapiolani, Kapalama, Kailua, Wahiawa, Hilo,

공 고

하와이 체육회 회장단 및 임역원을 확정 공고함과 아울러 제1회 총회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나이다。

〈고문〉
이윤희·천재학
김하인·이상억
오중정·최배웅
우문원·오세진

〈감사〉
정현복·오건창

〈이사〉
김정호·차형권
김홍준·윤 영
조태룡·정계성
신동일

회장—전극도
부회장—임철호
부회장—고봉식
사무국장—김용덕
재무부장—김동균
섭외부장—박필규
홍보부장—정현종
심판부장—김준배
경기부장—박용남
태권도분과위원장—홍성옥
축구분과위원장—박성호
정구분과위원장—박영태
농구분과위원장—최근창
배구분과위원장—김용덕
야구분과위원장—박남진
사격분과위원장—최대윤

제1차 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

●시일·一九七六年 三月 二七日(土)下午七時
●장소·와이키키 리조트호텔 녹산장 회의실

하와이 체육회 회장 전 극 도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